

국문학연구사 연구의 의의와 방법

— 김태준을 예증으로

류 준 필

1. '연구사' 연구의 의의

모든 국문학연구는 '연구사'에 대한 연구이거나 최소한 '연구사'를 의식한 결과이다. 모든 연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존의 연구와, 혹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사와 관계를 이루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새롭게 제출되는 연구는 이종의 관련을 본질로 삼는다. 첫째는 연구의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연구대상과의 관련이다. 어떤 연구자가 행하는 연구는 반드시 대상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의 연구와의 관련인데, 이 관련에 의지해 특정한 연구는 자신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연구의 경우는 주로 '연구사'의 가장 끝자리에 서서 기존 연구사에서는 없었던 영역을 새롭게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이러한 목적 아래에서만 스스로의 의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이다. 이때에 기존 연구란 '이미 주어진 연구대상과 기존 연구의 분석 사이의 관계'라는 점에서 문제거리가 된다. 그것은 새로운 연구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였기에 그러하다¹⁾. 여기서는 주어진 연구대상이 일차적으로

1) 새로운 자료의 발견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자료의 새로움이라는 것 또한 연구대상 내부에서 발생하는 새로움이지 연구대상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고²⁾ 그 본질에 다가섬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들이 역사적으로 쌓여나가 형성되는 것이 연구사라 하겠다. 그런데 연구사 자체만을 살펴보면, 연구사의 흐름은 ‘제한되고 규정된 대상’과 그것에 대한 ‘제한없고 무수한 연구’로 대비되어 나타나는 듯하다. 다시 말해 연구사는 대상보다는 연구하는 주체³⁾-사유-와 일차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사에 대한 연구란 일반적인 연구와는 구별되는 다소 특이한 영역을 그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다. 연구사 연구의 대상은 기존에 행해진 연구들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좀더 정확히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에 맺어진 특수한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요컨대, 연구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그러한 ‘관계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다분히 이차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차적이라고 해서, 그 경중을 따질 때 부차적인 영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연구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다음, 연구사가 형성된 다음에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순서상 이차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연구에 대하여 자기근거를 질문하고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더 근본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구사 연구의 이차적 성격은,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묻고 탐구할 책임이 있다.

1) 연구방법론과 연구자의 사유체계에 관한 질문 : 주어진 대상을 “그렇게” 연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정한 연구자가 주어진 대상(국문학)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발견되는 방식은 특정 연구자 개인의 영역이기도 하고 때론 집단적인, 혹은 역사적 차원으로

아니기 때문이다.

- 2) 개별적 학문 분야에 있어서 연구행위가 가능한 것은 수많은 연구자가 존재함에도 그들에 의해 합의된 대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합의된 대상’은, 이 대상에 대한 연구가 무한히 계속되도록 만들어 주는 근거일뿐 아니라 동시에 특정한 개별학을 여타의 개별 학문과 구별해 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 3) 뒤에서 보이겠지만 ‘주체’라는 용어는 실제적인 개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제한하여 사용한다. 즉, ‘주체’는 이론적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확장될 수 있다.

2) 개별학문으로서의 국문학에 관한 질문 : “그 대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개별학문이 자기의 존립근거와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의 연구대상을 규정하는 방식과도 관계한다. 이는 곧 개별 학문의 발생에 관한 문제라 하겠다. 달리 말해, 국문학연구라는 행위 자체가 독자적 학문으로 성립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문학’이라는 영역 또한 역사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3) 學問 일반에 관한 질문 : 특정한 대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형이상학적 답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學問에 대한 개념과 체계가 역사적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위의 질문은 “學問의 근대성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단적으로 조선조 사대부들이 생각하던 學問이라는 것과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의 學問’이라는 것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아득한가!

연구사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연구사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문학사상과도 관련된다. 국문학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에, 어떤 형태로든 (국)문학에 대한 특정한 사상적 입장이 개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엄밀한 시각을 견지할 경우, 국문학연구와 문학사상은 구별할 필요가 생겨난다. 막연히 문학사상이라는 용어로 국문학연구를 포괄하려 한다면, 국문학연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제도로서의 대학’이라는 측면을 간과하기 쉽다. 근대 교육제도로써 경성제국대학이 건립된 이후 국문학연구는 대학에서 인정하는 ‘학문’이 되었다. 대학이라는 제도가 근대의 산물이라면, (근대)국문학연구도 근대의 제도로서 대학이 요구하는 학문의 요건에 적합한 성격을 갖추어 나가려고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문학사상이라는 통칭을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국문학연구사는 문학사상사와는 다른 각도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유로 해서 국문학연구사에 대한 연구는 독자적인 영역을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울러 이러한 문제에 다가서기 위해 우

선 김태준의 국문학연구에 접근할까 한다. 여기서 김태준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김태준은 학계에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이다⁴⁾. 물론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역설이 존재한다. 김태준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라는 사실은 김태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태준만큼 잘 알려진 인물도 없다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데, 공식적으로 발설되지 않을 뿐이지 김태준은 줄곧 연구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처럼 존재하는 김태준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연구사로 확실하게 끌어들이므로써 그 역사적 실체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둘째, 근대 학문의 성립이 경성제국대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태준은 경성제국대학 출신인 바, 그 자신이 받은 대학교육이 국문학연구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밝혀볼 필요가 있다.⁵⁾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밝혀둘 사실은 본고의 목적이 김태준의 국문학연구에 대한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는 달리, 김태준이라는 특정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사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 문제를 검토하고 그 실제적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김태준이 남긴 많은 저술 가운데 특히 『조선소설사』와 『조선한문학사』를 논의의 중심으로 삼기로 한다. 이렇듯 논의대상을 위 두 저작에 한정하는 이유는, 민족이나 국가를 사유의 단위로 하거나 ‘총체’로 문제시하는 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가 근대라고 보는 데에 있다. 국문학연구사 초창기에 나온 연구서들 가운데 대부분이 『—(문학)사』라는 표제를 달고 있었던 상황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⁶⁾

-
- 4)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김태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듯하다. 다만 『조선소설사』를 중심으로 김태준의 소설사 인식을 검토한 노꽃분이,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연구」(이화여대 석사논문, 1993)와 박희병, 「천태산인의 국문학연구」, 『민족문학사연구』 3집 (민족문학사연구소, 1993)가 있다.
 - 5) 같은 학교 출신인 조윤제와는 다른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김태준과 조윤제의 차별성을 고찰하고 그런 차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6)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자주 거론되어 왔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2. 이론적 문제 : ‘사유체계’라는 개념

앞에서 연구사 연구가 지닌 의의와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염두에 둔다고 해서, 연구사에 대한 연구가 곧바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연구사 자체나 혹은 연구사 속의 특정 연구자에 대한 연구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여기에는 이론적 난점이 개입한다. 이에 관한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儒敎의 思想을 婦人 及 下等社會에 普及한 것이니 金道洙의 著한 倡善感義錄에 現한 人物 及 事件은 此 主義의 好한 適例라⁷⁾ (띄어쓰기 - 인용자)

위 예문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창선감의록』의 작자를 김도수라고 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증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⁸⁾. 그러나 이러한 오류는 안확의 문학사관 일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⁹⁾

此外에 歌曲源流에 見하면 三篇의 詩가 잇스니 이는 近代詩와 同한 것이라 薛聰의 詩

仁心은 터이 되고 孝悌忠信 기동되야 禮義廉恥로 가즉이 에밋스니 千萬年 風雨를 만난들 기울줄이 잇슬야

成忠의 詩

뭇노라 저 禪師야 關東八景 잇더트니 明沙十里에 海棠花 붉이(어?) 잇고 遠浦에 兩兩白鷗는 飛疎雨를 하더라

乙巴素의 詩

趙相國 范小伯이 名遂成功 못한 前에 五湖烟月이 釣홀줄 알년만은 西施를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조동일의 『동아시아문학사비고론』(서울대출판부, 1993)이 학계에 제출되었다. 실증적 사실은 위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 7) 안확, 『조선문학사』(한일서점, 1922), p 99.
- 8) 물론 반론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학계의 통설을 좇아 『창선감의록』의 작자를 조성기라고 하자.
- 9) 위의 오류는 어쩌면 너무도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특정한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관계 맺는 특수한 방식이라는 점이라 보는 것도 타당한 관점이라 하겠다.

깃노라하야 느저 도라 오더라

觀컨대 當時 社會가 一般으로 歌를 嗜하던 處를 可知라 此로써 當時 社會
의 風姿를 窺하기 可得이니라¹⁰⁾

위 인용문은, 『가곡원류』에 수록된 시조 작품을 삼국시대의 것이라고 안확이 판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예문과는 달리 이러한 오류는 문학사를 보는 기본 관점에 큰 문제를 남길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결과적으로, 시조 발생을 삼국시대까지 소급하여 민족 고유의 형식인 시조가 불변의 형상으로 나타나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시조형식의 지속여부가 아니라 그렇게 문학사를 재구성함으로써 연구자가 증명하려고 했던 것,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의 결합 가능성이다¹¹⁾. 연구사 연구의 중심은 그러한 연구자의 사유(체계)에 있지 그것이 산출한 진술의 사실성 여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이론적 난점이 바로 여기서 생겨난다. 즉, 어떻게 하면 연구자의 사유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모든 연구는 언제나 자기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스스로를 지탱하기 때문이다.¹²⁾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해 우선 연구자의 연구과정을 일반적 도식으로 그려본다.

10) 안확, 위의 책, pp. 28-9.

11) 안확의 국(문)학 연구가 민족 고유성의 탐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음은 줄고, 『자산 안확의 국학사상과 문학사관』(서울대 석사논문, 1991) 참조

12)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보자. 안확은 대종교에서 발굴해 소개한 「神歌」를 최초의 가요라고 하였다(같은 책, pp. 10-11).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억측 자체에 있지 않다. 안확의 이러한 주장은, 대종교에서 주장한 “宗思想”을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이라고 인정하고 종사상의 변화, 발전의 과정을 통해 민족사 전개의 자립성과 독자성을 확립하겠다는 안확의 ‘사유’에 의해 『조선문학사』 속에서 정당화되어 있다. 이처럼 실증적 사실 여부와는 다른 영역에 위치시킬 수 있는 ‘사유체계’라는 범주의 설정이 가장 중요한 이론적 문제가 아닌가 한다.

(개별적 사실, 자료) - (연구자) - (사실의 발견, 재구성)¹³⁾
 A B C

연구사 연구의 대상은 B가 A를 대상으로 받아들여 거기에 작업을 가해 C를 산출하는 과정 전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이론적으로 대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적 사실로부터 연구자의 독특한 사유나 방법을 분리해 내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개개의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작업, 연구과정을 ‘이론화’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를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그런 과정 자체를 이론화하는 가운데 이론을 발견할 수 있고 연구의 대상을 이론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사유”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사유’와 사유의 바깥에 존재하는 ‘사유대상’을 이론적으로 변별한다는 점에서 인식론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연구과정이란 B가 A를 해독함으로써 C라는 결과를 산출해 내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원칙적인 의미에서 말할 때, 동일한 대상인 A를 향해 작업을 하더라도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 이처럼 서로 상이한 결과를 산출하게끔 작용하는 B라는 영역내의 무엇을 두고 앞에서 일단 ‘사유’라고 지칭하였다. 그렇다면 사유와 대상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앞에서 든 안확의 예를 잠시 상기하자. 두 가지 예문 모두 안확이 저지른 실증적 오류에 관한 문제다. 이는 전적으로 A영역 내의 문제라고 하겠는데, 이 영역에서 아무리 사실 여부를 판단해도 연구자의 B영역으로 옮겨갈 수는 없게 된다. 반면에 A에서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B의 위치에 있을 때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관계를 단순히 1대1로 투명하게 대응되는 관계로 치환해 버릴 경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B의 인식이 옳았다 혹은 틀렸다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작 우

13) 물론 이 단순한 도식하나가 연구과정 일반을 정확히 지시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이론적 난점의 해결을 위해 개념의 범주를 설정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왜” 혹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한 질문은 애초부터 차단되고 만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관계를 이처럼 1대1의 투명한 대응으로 설정하면, 얻을 수 있는 결론이란 단지 연구자의 능력과 한계뿐일 것이다. 이러하다면 연구사 연구의 이론적 기준이나 척도를 마련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연구자의 사유를 이론적으로 대상화하고 그에 대한 개념을 뚜렷이 하기 위해서는(이론적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대상과 연구자의 사유 사이의 불연속적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¹⁴⁾. 이제 주어진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더 이상의 우회를 중지하고 직접 마주서기로 한다.

연구자(의 연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보고 읽는다는 문제는, ‘무엇을 연구했나’가 아니라 ‘(특정한) 연구대상(을 그렇게) 연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임은 이미 언급했던 바다. 이런 질문은 연구자의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밝힌 사실과 사실에 대한 시각, 그리고 그런 사실을 보게 만든 ‘사유(구조)’에 대한 질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 ‘사유(구조)’를 이론적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이제 김태준의 예를 통해 살펴보겠다.

이때(고려시대-인용자)에는 深奧한 經學보담도 淺近한 詞章에 全力을 傾注할 적이어서 일즉 武后 垂拱 二年에 新羅王 金政明이 雜文章에 關한 書籍을 請함으로 文館詞林 五十篇을 勅成하여 주었다 하며(舊唐書) 高麗 때에는 柳河東集을 刊行하여 읽고 더욱 韓柳 二家를 詳釋하였다 하며(有學集) 더구나 高麗其書, 又有文選, 尤愛重之(舊唐書), 白居易於文章精切, 當時上人爭傳鷄林(新唐書)¹⁵⁾

위의 인용문은 김태준이 고려시대 한문학을 개관하는 자리에서 밝혀

14)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불연속성이라는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한 배려를 요청한다. 연구자의 사유와 연구대상이 1대1의 단순 조용관계를 벗어나려면, 단순한 문자 그대로의 독해가 아니라 사유와 연구대상 사이의 어그러짐이나 괴리에 주목해야 한다. 비유컨대, 범피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취조하듯 일치가 아닌 불일치, 합치가 아닌 어긋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15) 김태준, 『조선한문학사』 (조선어문학회, 1931), p. 42.

놓은 사실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여기에는 많은 부분 오해 내지 오독의 잘못이 나타나 있다고 한다.¹⁶⁾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나) ¹⁷⁾
신라 신문왕이 당에 잠문장 요청	'잠문장'은 사장이라기보다 지배체제에 관련된 내용
고려시대의 『문선』 애용	경당의 교과서로 『문선』이 인기
당나라 선비가 백거이 문장을 신라에 다투어 전함	백거이 시를 신라왕이 알 정도로 인기

위의 도표를 통해 볼 때, 고려시대의 한문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김태준이 오독 내지 오인하였음이 나타난다. 구체적인 검토 결과 (나)가 역사적인 사실에 해당하고 (가)는 김태준이 범한 오류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누차 지적했듯, 사실 자체나 오류 여부가 궁극적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근거를 밝혀야 한다. 김태준의 오류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의 암시가 들어있는 부분이 동일한 책에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고려 : 四六文 漢文唐詩 - 渾厚 推讓 - 交際親密 - 溫潤
 조선 : 宋을 專主 - 偏狹 攻駁 - 黨爭熾烈 - 生硬 乾燥¹⁸⁾

김태준은 고려시대의 한문학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조선시대의 한문학은 과도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태준이 고려시대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본 까닭은 조선시대 한문학을 비판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한다는 데 있었던 것이다. 즉, 『문선』이나 백거이의 작품, 한유와 유종원의 고문 등이 고려시대에 이

16) 위 인용 부분에 대한 주석 작업은 심경호, 「천태산인의 「조선한문학사」 검증」, 『한문교육연구』(1986), pp. 135-141에서 이루어졌다.

17) 심경호, 위의 글, p. 137.

18) 김태준, 위의 책, p. 41.

미 폭넓게 수용되었으므로 조선시대 한문학이란 고려시대의 단순한 되풀이이거나 약간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¹⁹⁾ 이상의 고찰을 거쳐 연구자(김태준)가 자신의 시각을 통해 본 내용과 보지 않은(못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거니와, 이런 현상은 ‘현존하는 것 + 부재하는 것’ 혹은 ‘본 것 + 간과한 것²⁰⁾으로의 정리가 가능하며, 아울러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암시적이거나 살피볼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다른 하나의 이론적 문제가 개입하고 있다. 사유와 사유대상 사이의 이론적 분리와 아울러 연구자의 ‘사유체계’와 그것이 놓여있는 ‘연구사의 흐름과 전개’ 사이의 이론적 분리가 요청된다. 왜냐하면 ‘본 것+간과한 것’이라는 단일 논리를 따를 경우, 연구자의 연구대상의 모든 성질은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이 갖는 단순한 여건으로 환원되고 만다(‘연구 조건이 열악해서’ 아니면 ‘연구 수준이 낮아서’ 혹은 ‘자료가 부족하니’ 등등의 표현으로). 이렇게 되면 ‘사유’의 독자성은 이론적 입지를 잃어버리고 소멸된다. 다시 말해, 뒤의 연구자에서 앞의 연구자가 보지 못했던 것을 빼면 앞의 연구자가 본 것이나 볼 수 있었던 것만 남는다는 논리로 된다. 이런 식의 논리에 따르면 연구사란 언제나 발전과 확대만을 거듭하는 것이 되며 그 발전과 확대라는 것도 양적인 증가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이런 이론적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본다는 것’과 ‘보지않는다는 것’을 단일 개념으로 묶어야 한다. 그리하여 ‘보지않는 것’은 ‘본다는 것’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구조임을 이론화 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김태준으로 돌아와서 이런 이론적 문제를 정립하여 보자. 김태준이 고려한문학을 높이고 조선한문학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이유는 조선시대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를 이론적 문제와 관련시켜 논의할 경우, 앞에서 도명한 내용분류 가운데 (가)를 보았다는 것의 외부에 (나)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외부의 (나)를 근거로 (가)를 산출한 사유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²¹⁾, (가)를 본다는 행위 혹은

19) 심경호, 위의 글, p. 140.

20) 이 용어는 알튀세르, 『자본을 읽는다』, 김진엽 역 (두레, 1991), pp. 27-33 참조.

시선 속에 (나)를 보지 않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와 (나)는 분리되어서는 안되고 단일 개념 속에서 (가)와 (나)의 필연적 관련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가)와 (나)의 필연적 관련이란 개념적으로 사유체계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연구자가 (가)를 본다는 것은 단일하고 순수한 개인으로서의 주체에 부여된 시각능력이 아니라, 이와는 질적으로 다른, (나)와의 필연적 관련 속에서 존재하는 “봄과 보지 않음(못함)”의 “구조”의 문제이다. 이러할 때야만이, 인식론적으로 사유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바, 그것은 바로 ‘사유체계의 구조²⁰⁾’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3. 사유체계와 저술의 상관관계: ‘개념의 생산’과 ‘저술의 독해’ 문제

앞장에서 ‘현존과 부재’, ‘보는 것과 간과한 것’이라는 용어를 통해 연구사 연구의 대상이 ‘사유체계(의 구조)’라는 논의를 폈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연구자라는 개인적 주체와 연구대상 사이의 투명한 1대1 조응 관계를 넘어서려는 의도 아래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사유체계’라는 개념이 뚜렷한 윤곽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유체계란 일종의不在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특정한 연구자를 우리가 읽을 때, 그 연구자의 사유체계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현실로서 우리 앞에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다시 말해 연구자와, 연구자가 행한 연구대상에 대한 진술²¹⁾ 사이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읽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와 연구자의 진술(연구자가 연구대상과 맺는 관계의

-
- 21) (가)는 오류이고 (나)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나)만이 보존되어야 하고 (가)는 폐기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나타나는 것
 - 22) 이런 이유로 해서 본고에서는 특정한 연구자 혹은 연구주체의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그 말속에 이미 ‘본다(관)’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인바, 이 용어는 ‘봄과 보지 않음의 구조’라는 의미를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23) 앞에서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연구사를 연구할 때 우리의 1차적 자료는 연구자가 써 놓은 글일 따름이다.

의현 형태)은 1대1로 명증하게 합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상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김태준의 문학사 서술에 대한 고찰로 나아가기로 하겠다.

소설이 문자로 표현한 인간생활의 진상이라 할진대, 다시 나아가 생활의 조건과 상태를 전통적으로 어느 사이까지 동일하게 하여온 국민적 문학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진대, 그 문자는 반드시 그 나라의 고유한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면 그 나라의 문학이 아니라는 귀결에 낙착하게 된다.²⁴⁾

위 인용에서는 두 가지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민(적) 문학”과 “고유한 문자”라는 단어이다. 전자는 “인간생활”이라는 의미와의 연관선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후자는 표기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거론된 것이다. 특히 표기수단의 문제는 줄곧 연구자들의 관심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라 하겠거니와, 그런 이유에서 훈민정음의 창제는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사건이라 평가된다. “문예라는 것은 어떠한 설화적 소재를 예술적으로 문자상 표현을 한 것이니 표현 이전에 문예가 성립하지 못함과 같이 표현에 사용하는 문학적 규약이 없이는 더구나 국민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도구인 국어를 떠나서는 도저히 국민문학이니 향토예술이니 하는 것이 완성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말 조선문학은 한글 창정 후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함이 가하다.”²⁵⁾ 김태준의 이같은 국문표기에 대한 집착은 반대급부적으로 한문학에 대한 엄청난 비하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 김태준은 스스로 “漢文學은 支配階級の 잡꼬대가 아니면 風月打令이었기 때문에 一般民衆의 생활을 엿볼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鸚鵡之言에 무슨 史的發展이 있었을까 하니 漢文學史에 무슨 方法論이 必要할 것인가”²⁶⁾라고 극언하였다. 그러나 김태준의 이러한 진술은, 실제로 모든 한문학 작품이 그렇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국문표기를 중시하는 원칙이 스스로에게 강제한 발언이라고 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24) 김태준, 『중보 조선소설사』 (박희병 교주본, 한길사, 1990), p. 31. 이하 『소설사』로 약칭.

25) 『소설사』, p. 63.

26) 「『조선한문학사』방법론」, 『김태준전집3』 (보고사, 1990), p. 3.

앞서의 인용문에서 볼 때, “국민문학”이라는 용어는 “인간생활”이라는 의미와 관계를 이루는 말인데, 의미의 편차는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인간생활”이 위에서 언급한 표기 수단의 문제와 접촉하면 ‘현실생활’²⁷⁾이라는 말로 치환되는데, ‘현실생활’의 문제는 여러가지 형태로 변모하여 표출된다. 첫째, ‘현실생활’은 『소설사』의 경우 고전소설의 국적문제에 대한 해명을 강요한다. 고전소설 일반의 ‘현실생활’에 대한 背馳가 야기한 문제다. 김태준은 조선소설이 중국을 무대로 한 이유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야 했고, 명나라 소설을 번역하거나 모방한 작품들도 있지만 “명대 소설과는 인연이 멀고 내용에 나아가서도 조선적 정조”²⁸⁾를 느끼게 하는 작품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밝혀야만 했다. 둘째, 고전소설의 현실성 문제는 아울러 중국과의 관계로 변용되기도 한다. 이 때는 ‘현실생활’이 중국에 대한 조선의 독자성과 같은 의미맥락에서 거론되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최치원과 김대문이다. 김태준은 김대문의 『계림잡편』과 『화랑세기』, 최치원의 『신라수이전』을 두고, 한자의 괴뢰가 되지 않고 향토의 전설을 수집하여 당의 전기소설에 맞설만한 작품으로 수용, 번개하였다는 점에서 고평하고 있다.

국문 표기와 현실생활과 함께 김태준에게 중요한 측면은 평민 혹은 민중으로 표현되는 하층 계급의 문제다. 평민이나 민중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하나 가장 분명하게 작품을 통해 굴절된 형상을 갖춘 것이 남녀 간의 연애문제이다. 연애 특히 자유연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근대소설 발생기를 전후한 자유연애 사상의 선전이라는 상황

27) 김태준은 소설을 정의하는 자리에서 룡의 말을 빌어 “소설이라는 것은 평범한 인간 생활의 실화를, 고조한 정서로써 말하되 창작적 흥미를 파란과 모험에 향치 아니하고 진실한 진실한 자연에 근거를 둔 담화적 서술”(p. 18)이라 하면서 1919년전에는 이 정의에 해당하는 소설은 우리나라에 한 권도 없었다고 단정지었다. 물론 이 단정은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발표자의 관심은 이런 자신의 판단이 실제 소설사 서술에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있다. ‘현실생활’을 표현한 작품 유무의 실제 성과, ‘현실생활’이 소설사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8) 『소설사』, p. 21.

과, 자유연애는 반드시 기존의 윤리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춘향전』을 계급타파와 인간해방으로 파악한 김태준의 해석²⁹⁾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외에도 『三國史記』의 「都彌傳」과 「溫達傳」을 해석하기를 “도미의 처의 정결과 은달 婦의 연애가 요컨대 계급관계를 초월하여 존재”한 것이라 하였다.³⁰⁾ 또한 『三國遺事』에 실린 많은 기사 가운데서 김춘추와 백제 무왕의 결혼담을 뽑아 시속을 초월한 사랑이며 자유스러운 연애결혼이라고 평가하였다³¹⁾.

이상에서 김태준의 문학사류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부면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것들은 김태준의 사유체계(구조) 내에서 특정한 효과를 발하며 위치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가시적인 형태로 제시되는 성격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가시적인 요소들은 결코 개념들이 아니다. 국문표기, 현실생활 그리고 자유연애는 김태준에 의해서 어떠한 개념규정도 받지 않았으며 실제 사용에서도 이들 용어는 특정한 경험적 현실을 지칭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론이란 곧 개념을 통한 사유라고 할 때, 김태준은 개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김태준의 용어는 거의 모두 역사적, 경험적 현실을 단순히 지시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 표기수단, 현실생활, 자유연애 모두가 그렇다. 자신의 사유체계를 벗어나도 언제나 유효한 지시어들이므로 그것은 개념이 아니다. 개념이란 특정한 사유체계 내에서 생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론적 개념이란 경험적 현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 내에서 사유되어지는 대상과만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념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하는 것이며, 늘 있어온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태준에게 있어서 표기수단, 현실생활, 평민(민중)이 합의하는 바를 포괄하면서 동시에 각각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좀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질문은 우리가 해답을 찾아 김태준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성격의 것이다. 왜냐하면, 개념이란 가시적 현실 속에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거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고 구성되어

29) 『소설사』, pp. 185-202

30) 『소설사』, p. 36.

31) 『소설사』, pp. 38-9.

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中國民族의 精神의 流動을 볼 수 있는 文學은 全혀 中國 現代의 口語體인 白話에 있음으로 인제는 古代의 文言體의 詩文은 한 骨董品을 古董하는 硯 밖에 되지 아니하며 나의 이 題目도 한낱 古典研究에 끝이 나니 文言體의 漢文을 배워서 漢文을 짓는 時代는 完全히 살아져 버렸스즉 이러한 研究는 古代文化의 決算整理에서만 意味가 있고(하략)³²⁾

위 인용문에는 김태준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암시하는 용어, “백화”가 있다. 물론 “백화”라는 용어는 중국의 구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윗 글에서는 조선의 문언체 한문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있다. “백화”의 함의를 좀더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中國에 있어서 文學의 概念은 文學革命을 前後로 하고 크게 變化되어 文藝의 中心은 詩歌, 小說, 戲曲으로 옮기게 되었고 胡適 一派의 提唱한 文學革命이 드디어 勝利를 본지 十五年間에 인제는 文言體의 文學은 完全히 痕迹을 감추고 尺童匹夫도 白話文을 解지 못하는 者가 적게 되었다.³³⁾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백화”는 호적 일파의 “문학혁명”과 “척동필부”-평민(민중)의 실용과 관련을 이루고 있는 말이다. 문학혁명이란 물론 호적, 진독수, 주작인 등이 중심이 되어 펼친 백화문학운동을 지칭한다. 그리고 일반 민중이 이해하기에 편리하다는 사실은 백화문학운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말하고자 함이다.³⁴⁾ 이렇게 볼 때, “백화문학”은 김태준의 사유 속에서 개념으로 위치지을 수 있지 않나 한다.

이런 반론이 가능하다. “백화문학”이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집단을 중심으로 외쳐진 경험적, 현실적 대상이지 사유내에서 생산한 개념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반론이 그것이다. 이는 지시하는 대상의 변화에 따라 개념도 아울러 변하는 모습에 대한 하나의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중국

32) 『한문학사』, p. 6.

33) 『한문학사』, p. 190.

34) 김태준, 『문학혁명후의 중국문예관』, 『김태준전집 3』 (보고사, 1990)에도 이러한 언급이 나온다.

에서 백화란 문어에 대응되는 구어라는 의미에서 백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백화’라는 용어는 구어의 의미가 아니라 한자(문)에 대칭되는 국문이라는 뜻으로 전이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백화문학이란 곧 국문문학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우리가 쓰는 백화라는 용어는, 중국을 가리킬 때는 역사적 경험적 현실을 지칭하지만 우리 문학사 내부의 경우라면 국문문학을 뜻하게 된다³⁵⁾.

백화라는 용어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매우 중요한 문제영역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즉,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을 지시한다는 점과 국문문학을 함의한다는 점은, 문학사 인식에 있어서, 전자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대상(문학작품과 작가 일반)의 역사와 관련되지만 후자는 ‘재구성된 역사적 시간 개념’과 관계를 이룬다. 『조선한문학사』를 예로 들며 고찰해 보면, 『한문학사』는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한문학 관련 자료의 연대기적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한문학사』란, 경험적 대상의 순차적 나열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역사 혹은 시간 개념에만 관련된다는 점에서 전자의 영역에만 해당된다. 『한문학사』를 아무리 반복해 읽는다 하더라도, 원문의 연속성에만 매여 문자 그대로의 독해만 할 경우는 『한문학사』에 숨어 있는 ‘문학사의 시간’은 직접 해독이 불가능하다. 전자가 이미 주어진 경험적 대상의 영역 내부의 문제이고, 후자는 사유 혹은 사유과정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사유체계의 구조’는 후자와 직접 관련된다.

이미 앞에서 다룬 논의, 연구자의 ‘사유체계’의 구조적 성격에 바탕을 두고 사유체계의 이중적 성격을 검출할까 한다. 이중적 성격이란 공시성과 통시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³⁶⁾. 그러나 이는 구조주의적 일반 용어는 아니고 사유체계 자체에 내재된 성격이다. 우선 공시성이란 주어진

35) 중국에서는 문언문이든 백화든 동일한 문자-한자와 관련되지만, 우리의 경우는 한자의 문어와 구어, 우리말(글)의 문어와 구어 문제가 얽혀 있어 훨씬 복잡하다. 김태준은 이러한 복합적 성격을 ‘한문(문어) : 국문(구어)’라는 대립으로 치환시켜 버렸다. 물론 이는 이론적 결합 내지 오류가 분명하지만, 여기서 정작 문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한문 : 국문’의 대립이 김태준의 사유체계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며 왜 그런 식으로 구조화되는가 하는 것이다.

36) 알튀세르, 앞의 책, pp. 80-86 참조.

연구자의 사유가 구조적으로 지탱되고 체계화되는 요소의 관계 내지는 위계화된 질서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체계에 가깝다. 표기수단, 현실생활, 자유연애 등등의 요소들이 백화라는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와 의미를 결정하는 내적 구조라 하겠다. 반면에 통시성이란 역사적, 시간적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체계의 공시성이 창출한 구조가 글쓰기 혹은 논증의 형식으로 표출될 때, 그 진행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개념의 계기적 출현 형태를 지칭한다³⁷⁾. 이를 『조선한문학사』에 가설적으로 적용시켜 말하자면, 『조선한문학사』의 서술형태는 경험적 대상 자체의 통시성 혹은 연대기적 순서에 의존하고 있을 따름이지 공시적 사유체계의 구조가 개념을 매개로 자신의 사유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³⁸⁾.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다시 백화의 문제로 돌아가면, 호적의 『백화문학사』에서 보이듯, 백화나 문어나 글자는 동일하기에 과거 문학작품 속에서 구어가 쓰였거나 구어로 만들어진 작품을 뽑으면 백화문학의 순차적 흐름의 윤곽은 일단 설정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구어 문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표기문자의 상이까지도 얽혀 있으므로 백화의 역사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김태준의 『한문학사』는 비현제적인 저술이 되고 말았다. 고대의 단군신화부터 시작해 창강 김택영까지 한문학사의 흐름을 두루 훑었지만, 중국에 가서 김태준이 외친 것은 ‘조선 한문학의 종말’이라는 말일 따름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김태준은

37) 이러한 이론적 분리를 확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다. 김태준의 『소설사』를 두고 실증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입장과 계급사관에 입각해 있다는 입장이 양립해 있는데(박희병, 위의 논문, pp. 255-260), 이는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둘다 타당하다고 하는 단순 절충론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내적 혼란이나 모순이 왜 생겨났는가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혼란이나 모순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유체계의 공시성’과 ‘서술(글쓰기)의 통시성’ 사이에서 빚어지는 내적 대립, 불일치라는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38) 이런 시각은 연구사 연구의 독자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위배되지 않는 이론적 원칙 속에서 글쓰기 형태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조선한문학은 “음풍농월” 일색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선한문학사』는 역사적 전개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끝나는 지점만이 문제가 되었다. 前근대의 한문학사는 ‘反백화’라는 점에서 일체의 변화도 허용하지 않는 不變의 개념으로 고정되고 말았다. 즉, 실제로 『한문학사』의 본문은 백화와 아무런 연관이 드러나지 않으며³⁹⁾ 이에 따라 사유체계가 생산한 개념들의 통시적 전개관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결론부분에 가서 “한문학의 종말”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태준의 『한문학사』는 좀더 철저한 방법론이나 사관에 입각하여 서술될 수 있었음에도 당시 여건상 그렇지 못했다고 보아서는 안되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게끔 자신의 ‘사유체계’가 강제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소설사』는 『한문학사』와는 썩 이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한문학사』가 反백화라는 점에서 철저한 부정의 대상이었다면 『소설사』는 거의 국문으로 표기된 작품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형된 ‘백화’문학사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하다. 김태준의 『소설사』를 『한문학사』와 마찬가지로 사유체계에 대한 논의의 연장상에서 검토하기로 하자.

『소설사』는 본문 속에서 백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소설사』의 중심 대상이 국문소설이라는 점에 착안하면 『소설사』는 백화문학사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백화란 문어에 대응되는 구어라는 의미에서 백화이지만, 우리의 경우 ‘백화’라는 용어는 구어의 의미가 아니라 한자(문)에 대칭되는 국문이라는 뜻으로 전이되며, 따라서 우리에게 백화문학이란 곧 국문문학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즉, 우리가 쓰는 백화라는 용어는, 중국을 가리킬 때는 역사적 경험적 현실을 지칭하지만 우리 문학사 내부의 경우라면 국문문학을 뜻하게 된다. 그러므로, 김태준에게 있어서 백화란 어떤 식으로든 지 중국을 염두에 둔 용어라 할 수 있다. 『한문학사』가 문언체 한문학의 전개와 백화(신문학)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대치하는 형상이라고 재구성하자면, 『소설사』는 기본적으로 백화라는 개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⁴⁰⁾.

39) 『한문학사』의 서술은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자료를 나열하고 항목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세한 목차는 생략한다.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난다. 『한문학사』야 종말을 알리는 조종의 구실을 한다고 하지만 『소설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조선소설과의 연관성을 문제삼아야 하므로 ‘백화(국문문학)’의 발전과정을 나타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한문학은 불변의 실체였던 것처럼 연대기적 나열에만 의존하면 되겠지만 『소설사』는 발전과정을 나타내야 하므로 소설사 전개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요청된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김태준은 이 문제를 명확한 개념화 과정을 거쳐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설사에 대한 인식은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김태준 나름의 소설사에 대한 인식은 근대⁴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근대 이전 고전소설사의 사적 전개를 김태준이 구성하는 하나의 축은 중국소설(문학)과의 영향관계이다.

김대문과 최치원은 모두 당 유학생이었고 김최가 본 당나라야말로 중국문명이 가장 찬란하고 한민족이 가장 광휘있고 강렬있는 감정생활을 할 것이며 당대의 염정전기는 당인생활의 반영인 만큼 당시와 함께 공전절후의 걸작일 것이며 나당 양국을 대표하던 문호 김대문과 최치원의 눈에 비친 신라 고유의 풍부한 전설이 모두 사원에 좋은 자료 아님이 없다. 알지 못해서, 이 『잡편』과 『수이전』의 내용은 고대 조선인의 소박한 환상과 신이괴기한 전설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고대전설집이었던 것이 분명하다.⁴¹⁾

위 인용문은 김태준이 설화시대를 다루면서 김대문과 최치원의 저작을 추론하는 모습이거나, 여기서 김태준은 중국 당의 전기문학 발흥을 근거로 『계림잡편』과 『수이전』의 산출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란 당

40) 김태준에게 있어 한문학과 국문문학의 분리는 매우 단호하다. “朝鮮文學이란 것이 純全히 朝鮮文字인 한글로서 鄉土固有의 思想感情을 記錄한 것이라고 할진대 다만 朝鮮語로 쓴 小說, 戲曲, 歌謠 등이 이 範圍內에 들 것이요 漢文學은 스사로 區別될 것이다.”(『한문학사』, p. 4)

41) 김태준은 그 기준을 갑오경장에서 찾는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근대라는 용어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민족국가, 제국주의 등과의 연관 속에서 그 개념의 내적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다. 김태준도 『소설사』에서 근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그때는 영정조시대로부터 갑오경장 이전까지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42) 『소설사』, p. 34.

시에 『삼국지연의』가 수입되었다고 추측하였고 임병 양란 이후에 명나라의 소설이 다량 유입, 번역되어 성장하는 평민들의 문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하였다.⁴³⁾ 이처럼 중국소설과 영향관계는 『소설사』를 구성하는 중심축의 하나이다.

또 한편으로 김태준은 국내적 소원을 밝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설화-패관문학-소설’이라는 기본 구도 위에서, 특히 설화의 소설화 과정을 중시하면서 국내적 연원을 밝히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축은 근대 이후 소설을 논하는 자리에 들어서면서 변모를 일으킨다.

먼저 중국소설과의 영향관계부터 살펴보면, 중국의 문학혁명이란 김태준에게 하나의 이론적 거점으로 작용할 뿐이지 실제 당시 조선의 문예활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았다.

조선의 소설은 원래 이야기책에서 출발했다. 그러한 내용과 형식이 양반 사회의 퇴물이었다. 시민은 異樣의 문학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외래의 소설을 수입하여 이야기책을 개혁해서 현대적 의의의 소설을 쓰게 된 것인데 중간에 과정적으로 신소설시대를 지났다.⁴⁴⁾

위에서 말한 이양의 문학이란 물론 서구 혹은 일본소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문예운동”이후의 소설은 중국과의 직접적 관련을 잃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사실은 중국과의 관련이 끊긴다고 해서 기본적 구도가 붕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중국의 자리에 서구(일본)가 대신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 서구(일본) 문학 중심으로 초점이 옮겨감에 따라 중국의 문학혁명에 입지를 마련하고 있는 김태준의 무게가 다소 약화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김태준의 “백화”라는 개념은 지속적 의의를 확보한다. 여러 차례 언급했듯, “백화”란 경험적 현실을 지시하는 기능 이외에 사유가 생산한 개념의 성격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김태준 사유체계의 통시적 전개는, 주어진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 읽는다고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사유체계가 생산하고 발견한 개념이 자신을 관철시키

43) 『소설사』, p. 27, pp. 70-1, pp. 92-100.

44) 『소설사』, p. 244.

는 과정은 저술 본문의 직접적인 전개와는 때론 상치되고, 충돌하며, 모순을 일으킨다. 오히려 주어진 본문 뒤편에 잠복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유구조를 재구성할 때 ‘봄+보지 않음’이 구조 문제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고 하겠다.

4. 남은 문제 :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존재하였던 연구자의 사유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이론적 문제를 아울러 검토하였다. 즉, 연구대상을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작업이라고 하겠거니와,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한 분석을 통해 구성해 본 김태준의 사유체계에 기반하여 애초에 그것이 자리하고 있었던 현실적 영역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그것이 점유하고 있는 연구사에서의 위치를 밝히는 작업이 과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당대 연구사 전반 — 국문학뿐만 아니라 국학 일반, 학문 일반 —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본고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이다⁴⁵⁾.

비록 대체적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김태준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에 기대어 말하자면, 김태준은 암시적인 형태이기는 해도 ‘백화=국문문학’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생산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특정한 사유의 내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유내적 영역과 이 사유체계를 결과로서 야기한 사유외적 영역까지도 고려하고, 그 상관관계를 검토해야 당대 역사적 현실로 개입할 수 있다.

앞장에서 김태준의 사유체계가 드러낸 결과에는 한문학에 대한 부정이

45) 가령 다음과 같은 문제들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 김태준과 마찬가지로 경성제국대학을 나온 조운제의 ‘시가형식론’과 김태준의 ‘백화(국문소설)론’과의 대비. 서도 출신인 김태준과 경북 예천의 중간층 출신인 조운제의 계층적 성격. 서도 중인층 출신인 현상윤의 문학론(철학사연구)과 김태준과의 비교. 소론 명문가 출신인 정인보의 국학연구와 김태준, 조운제의 국문학 연구의 차이. 정인보와 중인출신인 최남선의 국학연구의 대비. 조운제의 시가연구와 이병기의 시조연구의 차이 등등.

한편에 놓여있고 다른 한편에는 『조선소설사』에 대한 김태준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였다. 『조선소설사』는 밖으로는 중국, 서구(일본)와의 영향관계를 축으로, 안으로는 평민=민중의 성장을 축으로해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외민족과 대응되는 우리 민족이, 후자에서는 지배계급과 대응되는 피지배계급으로서의 민중이 단위로 설정된다. 민족이나 민중을 인식론적인 범주로 치환하면 이는 ‘주체’라고 명명된다. 주체라는 개념은 반드시 객체라는 인식론적 대상을 하나의 쌍으로서 동반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 과정이다. 즉, 민족이나 민중만을 개념화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그에 대응되는 객체로서의 외민족 혹은 지배계급이라는 개념이 잠복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유형태는 주로 ‘민족주의’와 결부되어 나타나거니와, 과도한 일반화를 무릅쓰고 말한다면, 식민지 시대에 지배적으로 존재했던 사유형태라고 하겠다.⁴⁶⁾ 따라서 역사적 현실로의 개입은 당대 국학 전체 나아가 사상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민족주의’라는 이념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항상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김태준의 국문학연구가 지닌 역사적 성격을 좀 더 뚜렷하게 파악하려면, 개인사를 통해 드러나는 내적 변모과정에 대한 상세한 고찰도 필요하고, 김태준과 거의 동시에 활동했던 다른 연구자들과의 상관관계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국학연구 일반에서 국문학 연구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배려도 당연히 요청된다. 이는 본고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방대한 문제이기에 앞으로의 과제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46) 이러한 사유형태는 60년대 이래, 특히 유신시대 이후 이남사회에서도 지배적으로 군림했다고 판단되는데, 여전히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국문학계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본다. 특히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펼쳐진 ‘근대문학의 자생성’ 논의가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